

동향(動向) 없는 문단(文壇)

— 진정한 동향(動向)의 출현(出現)을 대망(待望)하면서

「문단의 동향」이라는 제목을 받고 편집자의 기대와는 대단히 어그러질 「동향 없는 문단」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을 놓하여 보려는 것도 남의 의상(意想)을 허물어 쾌감을 맛보려는 것도 아니오, 다만 작금의 문단의 동향을 아무리 모색해도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뿐이다.

이것은 나의 두뇌의 저능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어떤 동향을 대표하고 또는 그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작가가 얼마든지 있고, 또 동향을 만들고 그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발분망식(發奮忘食)하고 있는 비평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동향을 찾아내지 못하는 나이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도 딱한 일이다. 나는 마땅히 우리 문단의 동향을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 붓을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자기경멸에서 오는 슬픈 마음으로 붓을 놓고 멀리서 문단의 화려한 광경이나 구경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시 한 번 문단의 이모저모를 응시하고 여러 가지 문단적 사건과 주장을 숙고하는 동안에 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

것은 지금까지 하나로만 알고 있던 문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만든 자기 독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완전히 합일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각자의 세계가 서로 교차되는 곳이 없고 완전히 독립할 때 그곳에 객관적 세계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 세계란 각 개인의 주관이 만든 세계의 교차되는 부면 위에 서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독자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의 자기세계의 창조는 그것이 객관세계의 창조에 참여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말한 지금까지 하나로만 알고 있던 문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는 우리 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문단이 서로 합일되지는 않아도 그곳에 어디인지 서로 교차되는 곳이 있으며, 각자의 주장이 완전히 귀일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들이 같은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발생되고 논의된다는 것을 표시할 관련이나 공통된 성격이 있다고 보고, 그 공통된 부면과 성격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곽에 각자의 견해와 주장의 상위되는 부면이나 성격까지를 전부 포용할 원주를 그려 그것을 조선의 문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 문단을 냉정히 고찰해 보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문단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한 세계라는 것과 각자의 주장에 서로 같은 한 세계에서 발생하고 논의되는 것으로서의 공통된 계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내 앞에서 객관적 세계로서의 문단이 소멸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서 각자가 서로 교차함이 없는 문단, 다시 말하면 서로 공통되는 면이 없는 내용을 가진 완전히 독립한 문단을 형성하고 있으니 조선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주관적 문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고 나도

또한 「동향 없는 문단」이라는 내 문단관을 피력하여 보기로 하였다.

문단의 동향이라는 것은 문단의 전체나 또는 어떤 부류가 통일된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합류해 나갈 때 그 움직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에 어떠한 동향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곳에 동일한 주장을 지지하고 또 문학적 실천으로 그 주장을 실현하는 다수인의 동일한 성격을 갖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문단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자가 독립한 자기의 세계만 고집하고 있으므로 다수인의 동일한 방향을 향한 합류적 노력과 실천이 없다. 동향이 없다.

최근 문단에서 시끄럽게 환조(喧囂)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문제와 휴머니즘 문제에서 문단의 동향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을 문단의 확고한 동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아직 동향으로 완전히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 그뿐 아니라, 그것들이 완전히 한 동향을 형성할 필연성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일을 두고 많은 비평가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논의와 논쟁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의 심화도, 발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을 작품으로써 실천해 준 작가를 얻어 보지 못하고 있다. 휴머니즘 문제도 작금 2, 3 논객이 열심히 논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문단적 반향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실천을 부르지 않는 이론은 언제나 공론이므로 작품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학이론 제창은 결코 진정한 문단의 동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피상적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런 제창이 그것에 따르는 실천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이론은 언제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나, 이론이 그 현실을 지도하려면 그것은 그 현실 속에 발생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적 리얼리즘이나(그 이론의 정당 여부는 이곳에서 별문에 붙인다) 휴머니즘은 조선의 사회적 현실이나 문단적 현실에 그 발생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조선의 현실적 현실이나 문단적 현실의 필연성에서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문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사회와 문단의 필연성이 낳은 문제를 조선에 수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조선에서 좋은 작품을 산출치 못한 것은 만데도 그 이유가 있으나, 조선과는 사회사정이 다른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그와는 전연 사정이 다른 조선에 그대로 이식하여 조선적 현실이 그 이론을 따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휴머니즘도 또한 그렇다. 외국에서 휴머니즘이 발생한 근거는 극단의 자연주의와 주지주의의 여파로 완전히 와해한 인간 전체성을 그리고 작품의 육체성을 찾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단에서 반동으로서의 휴머니즘의 원동력이 될 극단의 형식주의 작품도, 심리주의 작품도 찾을 수가 없다. 이곳에 조선문단적 현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그저 외국 문단의 논의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휴머니즘 제창이, 제창하는 그들 몇 사람의 반항없는 고함에 그치고 마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조선문단에는 동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동향같은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현상이 있으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동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조선 문단에 진정한 동향의 발생을 불가능케 하는 문단적 사실은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자.

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로 우리 문단에 아직 아무런 전통도 없다는 것을 들고 싶다. 우리의 구문학(舊文學)은 시조문학에 있어서 이외에 아무런 전통도 우리에게 남겨 주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 속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배우려는 용의와 노력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신

문학이 발생한 지 이제 겨우 20년, 아직까지 전통이 서지 못하고 있다.

문단의 전통이란(풍속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선대의 많은 위대한 작품의 공통적 성격이 빚어낸 어떤 규범성을 가진 무형적 존재다. 따라서 전통이 엄연히 서 있는 문단에서는 모든 작가가 한번은 그 속을 다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성장하여 나가고 변모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 속을 다녀 나올 때 작가는 그 전통에서 한 발 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에서 한 발도 더 못 나갈 때 그 작가는 벌써 낙오한 작가다. 그러나 전통에 입각하여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서는 사람은 다시 전통을 지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리하여 전통의 질곡을 느끼고 그것에서 탈출하려는 내면적 욕구가 어떤 방향을 얻고, 또 같은 방향을 가진 여러 욕구가 합쳐 흐를 때 그곳에 진정한 문단의 동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동향은 자기성장의 필연적 결과인 내면적 요구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천이 상반하지 않는 이론의 유희에 빠지는 일이 없다. 그때에 실천이 반드시 이론을 부르고 이론은 반드시 작품을 낳는다.

그런데 우리 문단에는 문단풍속은 있어도 이런 의미의 전통은 없다. 그런 전통을 만들기에는 우리 문단의 연령이 너무나 얇고 위대한 작가와 작품이 너무나 적은 것이다. 이곳에 우리의 형극의 길이 있다. 전통이 선 문단에서는 벌써 작가의 출발이 기반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있어서는 작가는 새로운 방향만 가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 문단에서는 작가는 방향을 가지기 전에 출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포즈를 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탄 문제에서보다도 작가의 근본적 수양 문제와 태도 문제가 제1주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탄 문단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학의 근본 문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수준이 높은 그곳에는 이것이 문단 이전의 문제요, 문단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판 문단에서 문단 이전의 문제인 이 문제가 수준이 다른 우리 문단에서는 문단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문단 이전의 문제를 다시 문제삼음으로써, 그리고 문학 출발의 제1보에 횡재(橫在)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감으로써 그곳에서 다 각각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상하고 있던 문단과 유파와 동향을 부정하고, 이제부터 그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판 문단에 발생한 주장을 곧 그대로 조선에 이식하고 외국의 그것을 모방하여 가공적 동향을 만들려는 노력이 헛되고, 오직 자기의 내면적 욕구에서 출산된 작품만이 유파와 동향을 낳는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 자각에서 출발하려는 진지한 예술적 양심과 태도를 가진 새로운 작가들이 우리 문단에 나오려는 기운이 이제야 익어감을 보지 않는 바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 실천을 통해서 어떤 동향이 발생할 것을 믿지 않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부터의 일이다.

(《사해공론》, 3권 2호, 1937. 2. 1)